

‘수능 풍경’ 학생·학부모들은 지금...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전남여고 3학년 교실 풍경. 모의고사와 기출문제 등을 풀며 마무리 준비에 한창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6일 광주시 동구 윤림동 증심사(證心寺) 내 법당에서 학부모 20여 명이 ‘수능 100일 기도’를 올리고 있다.

/위직람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전남 고등학교들은 고득점을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수능을 대비한 ‘비장’의 프로그램들은 ‘배짱 기르기’ ‘참선’ ‘채식 위주 급식’ ‘수능대비 시간 적용하기’ 등 다양하고 이색적이다.

광주 송덕고는 6일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모의고사를 치러 실전감각을 길렀다. 수능에서는 시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성여고는 컨디션 조절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환절기여서 감기환자가 늘어나자 충분한 휴식과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5일)이 눈 앞에 다가왔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 못지않게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도 가슴을 졸이고 있다.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학교풍경과 학부모들의 모습을 들여다봤다.

는 후배들이 마련하는 수능기원 다과가 준비돼 있고, 오는 13일에는 학부모들도 함께 참석하는 수능기원 미사가 학교 성당인 ‘마리아 체플’에서 열린다. 전교생 85%가 기숙사 생활을

능 철야기도’를 갖는다. 두 달 전부터 수험생인 외동딸과 함께 수능체제로 생활하고 있다는 이숙현(여·52·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는 “대신 시험을 봐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부를 대신 해줄 수도 없어 답답한 마음에 올 초부터 절을 나오기 시작했다”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남구 봉선동 겨자씨 교회는 오는 13일부터 학부모 및 교사들과

배짱기르기·채식 컨디션 조절 만전

수면을 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창현 진학실장은 “하루 종일 치러지는 수능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점수가 최소한 10점은 오르락 내리락한다”며 “다음주부터는 밤 10시인 하교 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스스로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습 측면에서는 지난 6월과 9월 치렀던 모의고사와 전년도 기출문제 등을 중심으로 최종 정리하고,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교과서에서 다시 찾아 들춰보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살레시오고는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아침 명상 시간을 이용, 9일 기도를 하고 있으며 2~3교시 사이에는 5분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게 하고 있다. 수능 2~3일 전에

는 장성고는 수험생들의 머리를 ‘맑게 한다’는 취지에서 식단을 채식 위주로 바꿨다.

환승 능주고는 ‘수능대비 목말하기’ ‘EBS 100% 활용하기’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실전 감각을 높이기 위해 1교시에는 언어 듣기평가 문제 듣기, 점심 후 5교시에는 영어 듣기 방송을 들려주는 등 수능 당일 시간표대로 일과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04명 졸업생 전원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한 담양 창평고는 3학년 교과 담당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2008 수능 마무리 화통점점’이라는 교재를 중심으로 수능에 대비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찰·교회·성당 애타는 母情 가득

다. 수능 100일 전부터 사찰과 교회 등을 찾았던 학부모들은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식들보다 속이 더 타들어가고 있다.

높은 산사(山寺)도 마다하지 않고 힘들게 산을 오르고, 온몸이 땀에 흠뻑 젖고 무릎이 깨질 것 같은 고통에도 108배를 올린다. 교회와 성당에선 철야기도가 한창이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원각사 법당에는 수험생을 둔 50여 명의 학부모가 9일째 ‘수능 100일 기도’와 108배를 올리고 있다. 무등산 증심사와 문민정사에는 이른 새벽부터 수험생을 둔 신도 100여 명이 찾아 예불을 드린다. 증심사는 수능 전날인 14일 밤부터 수능 시험이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수

함께 ‘수능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

다. 북구 임동 천주교회에서는 학부모와 가족들을 위해 6일 오전 9시부터 ‘수험생을 위한 9일 기도’를 시작했다. 수능 전날인 14일 오후 7시30분에는 ‘수험생을 위한 특별 미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시내 39개 성당에서도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정례(여·71·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손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는 어려운 관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매일 새벽 성당에 나가 기도를 드리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허위 임차인 만들어 경매 배당금

5명 징역·벌금형

광주지법 형사9단독 박현수 판사는 6일 모텔 건물에 경매로 넘어가자 허위 임차인을 만들어 배당금을 챙기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된 건물주 박모(46)씨에게 징역 6월을, 가짜 임차인 조모(46·양봉업)씨에게 징역 10월·김모(35·요식업)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들에 대한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건물주 박씨에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확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한 구모(51·노동서)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허위 임대차 계약서와 체불임금 확인원을 제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 경매 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당한 낙찰가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5년 1월께 광주원예농협이 채권 16억원을 근거로 자신의 모텔이 경매에 넘어가자 조씨 등과 짜고 각 층을 임대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모텔 종업원인 조씨 등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도록 해 법원에 해당 금액에 대한 배당을 신청한 혐의도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351) 김장두



신안 출신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명예퇴직 수당 지급하라” 소송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நட장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신안 출신 홍영기(50)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홍 전 청장은 검찰 ‘내사’(內査·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게 몰래 조사) 대상이었다고 해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위법하다며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홍 전 청장은 소장에서 “감사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수당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는 비위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을 받

고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비위가 없는 공무원이 비위 오해를 잠깐 받았다가 해소된 경우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내사와 수사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인데도 경찰청장이 내사가 수사에 해당한다는 중앙인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나를 수사중인 자로 본 것은 위법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홍 전 청장의 경우 계급정년이 없는 차관정감으로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경찰 나이 정년인 만 60세까지만 점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어 금액만도 수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업권 미끼 뒤통 뜯음

건설 브로커 2명 적발

광주지방경찰청은 6일 공무원에게 부탁해 아파트 사업 승인을 따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서모(49)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강모(4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12월18일 T건설회사 대표 배모(42)씨에게 “시행사로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2천400만원을 받아채킨 혐의

목포서 은행 365코너 강도

과도 위험 160만원 빼앗아

목포경찰청은 6일 은행 365 코너에서 여성을 과도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문모(17)군을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56분께 목포시 대성동 농협 365 코너에 현금을 인출하러 들어가던 중 장모(여·29·목포시 용해동)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한 뒤 돈을 인출하게 해 16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목포=이상규기자 lsh@kwangju.co.kr

미혼모 분유 값 마련하려고 절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미혼모가 분유 값 등을 마련하

려고 이웃집 금품을 훔치다 달미. ○6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여·33·북구 두암동)씨는 지난 9월6일 오후 6시께 이웃에 사는 이모(여·39)씨의 집에서 고급 시계를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시가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져갔다.

○김씨는 “4년 전 옷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남성과 사귀다 아이를 가졌으나 임신사실을 알고 남자가 떠나는 바람에 지금껏 아이를 홀로 키웠다”고 울며.

○김씨는 “홀친 시계 등을 팔아 마련한 현금 20만원으로 평소 건강이 좋지 못한 아들(4)의 약값과 생활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김씨의 딱한 처지를 감안해 불구속 입건기로 결정.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A large grid of various advertisements for real estate, services, and product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prices.